

'어성초' 효능 국제시장서 인정

보성영농법인 美에 10만달러 어치 수출

올해는 호주·러시아 시장도 개척 추진

인체에 축적된 각종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효과가 타월한 것으로 알려진 '어성초'가 미국에 이어 호주와 러시아에도 수출이 추진되는 등 국제시장에서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 보광어성초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서두석·67·사진)은 지난해 미국시장에 어성초

발효진액과 환제품 등 10만달러(9천 300여만 원) 상당수를 수출했다.

또 올해 추가로 1만여톤의 어성초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호주와 러시아 시장 개척도 본격화 추진하고 있다. 보광어성초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997년 전통식품 지원업체로 지정된 이후 2003년에는 독일 뮌헨버그 유기농세

계 박람회에 초청됐으며, 2004년엔 ISO 9001·2000 인증을 받았다.

또 2005년에는 전남 통합상표인 '남도미향'으로 등록됐으며 지난해 미국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기도 했다.

보광영농법인 서두석 대표는 38년 째 어성초 연구에 매진, 20여 년 전부터 15품종의 가공식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가공식품은 건조와 분말, 환, 발효액기스, 비누, 로션, 슬, 식초 등 다양하며, 인체에 해로운 색소, 향료,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는다.

대표상품은 어성초 발효진액으로

생즙을 내고 벌꿀과 올리고당을 혼합해 5년 이상 숙성 발효시킨다.

어성초는 잎과 뿌리에서 생산 비린내와 같은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를 불여졌다. '본초감목'에는 어성초가 송금속의 독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다고 기록돼 있다.

어성초 속의 '루에르치트린' 성분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피를 막게 해주고 독을 없애 미용효과가 있으며, 잡을 깨끗이 해주고 염증을 가시게 해주는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함평천지 '나비세상' 펼쳐진다

내달 3일부터 나비대축제 ... 생태체험 등 다양

함평 나비대축제가 다음달 3일 화요일 막을 올린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함평나비대축제는 5월 3일부터 8일까지 '함평으로 나비보러 오세요'라는 주제와 '나비의 세상! 애로 함평'을 부제로 함평을 함평천 수변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에는 종합 생태체험과 민속놀이 마당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문화예술 행사가 준비돼 있다.

3일 열리는 개막식은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 화려한 영상쇼 형식으로 진행되고 나비날리기 이벤트에 이어

경비행기와 비행선이 떠서 축제 분위기를 달군다.

특히 2008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앞두고 함평여중 체육관에 엑스포공원 미니어쳐와 빙프로젝트를 이용한 영상시설, 생명 탄생의 신비로움을 연출하는 '위대한 생명 탄생' 등이 운영된다.

이석형 함평군수는 "축제를 찾은 관객들이 쾌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감동을 들풀 담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 기간 동안 함평역에 고속열차(KTX)가 정차하며 철도공사는 인터넷으로 철도승차권을 결제하는 고객 가운데 300명을 추첨, 나비축제 입장권(1인 2장, 총 600장)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문의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함평군 (061-320-3224, 3773))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구례 야생화 암화 인기몰이

수상작 500여점 전시

관람객 날마다 초만원

농림장관 지원 약속도

구례에서 열리고 있는 야생화 암화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장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박장관은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되는 특화단지 조성 등을 정책적으로 배려해 나갈 것"이라며 "암화가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 구축 사업비를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의원도 "야생화 재배와 암화 관련 소득 사업들이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화 암화 공모전 작품 전시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속된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어 유치원생에서부터 학생, 일반인들에 이르기 까지 관람객들의 폭이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박종수 농림부장관과 우윤근 국회의원이 이곳을 방문, 전시장을 둘러보며 암화 암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박장관은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되는 특화단지 조성 등을 정책적으로 배려해 나갈 것"이라며 "암화가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 구축 사업비를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의원도 "야생화 재배와 암화 관련 소득 사업들이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암화 암화 공모전 작품 전시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속된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강진 왕겨 숯 공장 준공

5억 투입 강진농협 미곡처리장내 건립

올 숯·초액생산 3억5천만원 매출 기대



친환경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강진농협 왕겨 숯 공장이 지난 20일 준공됐다.

벼 도정 뒤 나오는 왕겨를 탄화(炭火)시켜 토양 개량제와 왕겨 초액을 만드는 왕겨 숯공장이 지난 20일 강진에서 준공됐다.

5억여원을 들여 강진농협미곡종합 처리장(RPC)내에 건립된 이 공장은 시간당 왕겨 숯 120kg과 왕겨 초액 160kg 등을 생산하게 된다.

전남지역에서는 나주 낙평농협과 순천 별량농협에서 숯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왕겨를 직접 가열, 숯을 만드는 방식은 이곳이 처음이다.

왕겨 초액은 강한 살균력과 작물성장 촉진, 토양 산성화 방지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왕겨 숯을 토양에 뿌릴 경우 양질의 미생물 증식과 생육발육 촉진, 병해충 예방 등 큰 효과가 있는데다 화학비료 사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강진농협은 올해 숯과 초액 생산으로 3억5천여만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농협 곡성군지부 생활쓰레기 수거활동

지난 23일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아 대합실과 놀이시설, 영화세트장 등에 신적 해있는 생활쓰레기 수거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주민숙원사업 등

회순군 공동집무

회순군이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주민숙원사업 108건(20억5천만원)

▲도비 보조사업 14건(2억5천만원)

원) ▲기타 사업 7건(1억7천만원) 등 129건에 대해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공동집무'를 실시했다.

이번 공동집무는 예산 이월(移越)을 방지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8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회순=조성수기자 css@

전남·북 시군 지사모집
www.party-food.co.kr
홈페이지 한글주소
파티외식산업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 개업식·기념식

파티외식산업

상담전화 광주본사 226-0085~7 ● 목포지사 (061)284-1115 ● 순천지사 (061)723-6003
● 전북·전주지사 (063)277-0083

새로운 품격의 프리미엄이 선보입니다

광신 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현장
지하철 1호선 송정역 / 송정리의 금호타이어
광신구청 / 송정중고
도산동
송정고● ● 송정사랑병원
프로그레스 구광신경찰서 부지
159세대 (준공예정일 6월 30일)
49 | 36 | 32 평형
분양 문의 945-8600
광신기족 : (주)광신종합건설 • (주)광신툥 • (주)광신전업
박찬환 팬사인회 ▶ 일시 : 5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 샘플하우스